

우라반다이 비지터센터의 설실(雪室) 소개

더운 계절이 되면 우라반다이 비지터센터는 설실을 이용해 시설 내 온도를 내립니다. 설실은 겨울 동안 쌓인 눈을 압축해 높이 쌓아 올려 저장하는 창고입니다. 시설 내 공기를 파이프를 이용해 설실로 보내 시원하게 만들어 다시 시설 내로 보내는 간단한 원리의 환기 장치입니다. 자연의 힘으로 온도를 낮추므로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. 방문객은 작은 창으로 설실 안의 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